

자유기업원 북콘서트

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

2023.03.07.



민경국 교수

목 차

- I. 문제: 왜 자유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읽어야 하나?
- II.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
- III. 책 미리보기



I. 문제: 왜 자유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읽어야 하나?

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vs.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의 대정부 질문

Q. 김 의원의 질문

“이재명의 수사에 대하여 국민의 51%가 불공정하다는 여론 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”

A. 한 장관의 대답:

“범죄는 증거와 팩트의 문제이지 여론의 문제는 아니다”

김 의원의 반응:

“내가 묻는 건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. 왜 나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회피하는가?”

한 장관의 대답:

“왜 김 의원의 프레임에 따라서만 답변해야 하는가?
내 프레임도 있다.”

I. 왜 자유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읽어야 하나?

➡ 이 책의 목표

이 책이 의도한 것도 바로 한 장관의 방식에 따른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.

➔ 우리는 **자유 사회의 고유성**에 비추어 자유주의의 언어로 자유주의 홈그라운드에서 간섭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

➔ **자유주의의 고유한 언어란...**

자유주의가 실현하는 가치:

개인주의, 자유, 정의, 평화, 자생적 질서



I. 왜 자유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읽어야 하나?

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: 노모스, 법의 지배, 공법에 대한

사법의 우위성, 법 앞의 평등,

자유국가: 삼권분립, 국가권력의 제한, 제한된 민주와 정부

지성사와 정치사는 언어 개발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.

마찬가지로 역사적 과정에서 자유 사회의 가치나 이런 가

치들을 수호할 제도를 표현하는 수많은 언어가 개발

II.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

- 공공정책을 자유주의 언어로 분석하거나 평가 없음.
- 경제성장, 균형발전, 사회적 비용과 효용 분석, 지니계수, 파레토 최적, 사회적 후생함수, 재정 건전성, 고보담-고복지 또는 저부담-저복지 등
- 사실상 사회주의적 용어로 사회주의 홈그라운드에서 사회주의와 수세적으로 싸움

II.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

- 1) 자유, 개인주의, 정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전무. 그 결과 분배, 복지, 자원 배분 또는 성장 등, 특정한 '사회적 목표'만 존재함. 개인은 그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뿐임.
- 2) 자생적 질서관의 무시, 조직질서의 존재만을 인정함.
- 3) 사회주의 혹은 간섭주의가 왜곡한 자유, 개인주의, 정의 개념 법 개념, 법치 개념 등에 굴복함
- 4)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자유주의의 가치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음

II.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

- 자유주의자가 진정으로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주의적 언어를 가지고 공세적 태도로 사회주의와 싸워야 함.
- 간섭주의적 사회주의적 언어를 통해 사회주의의 흠그라운드에서 다양한 공공정책을 수세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세적으로 접근해야 함.
- 그런 공세적 접근이 없으면 왜 우리에게 자유가 중요한가 또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가, 그리고 그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음.

II.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

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의 길을 가려면 자유를 통해서
한국 경제를 읽어야 한다.

III.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

제1장. 철학 없는 경제학, 사회의 골칫거리

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의 철학/자생적 질서 패러다임은 열린 사회의 사회철학/ 주류 경제학과 '음울한 과학' /노벨경제학상의 빛과 그림자/인간의 '울트라 사회성'을 이해 못 하는 사회생물학

- **철학없는 경제학:** 수리 계량을 동원, 시장을 자원 배분 '기계'로 오해하는 모형이론 제작에 몰두하는 주류 경제학, 스미스의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경제학
- **스미시안 전통: 철학과 경제학의 만남:** 경제학자의 문제는 항상 철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철학, 법학, 윤리학 민속학, 심리학, 역사학 등은 누구보다도 경제학자에게 친숙해야 할 분야라는 것.

III. 책 미리보기

제2장. 진짜 자유를 찾아서 경제적 자유가 성공 키워드(자유론)

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/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'자유론'의 역사적 의미/경제적 자유 경시하는 미신들/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/하이에크가 다시 생각나는 이유 /좌파정치의 자유가 위험한 이유

진짜 자유 개념: 홉스의 자유 vs. 스미스의 자유 개념

진짜와 가짜 개인주의;

홉스의 자유개념을 전제로 한 한국헌법(경제헌법).

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역사적 의미: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.

III. 책 미리보기

제3장.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

시장(市場)이 정치(政治)보다 현명한 이유/
/기업가정신은 불평등을 억제하는 '자생적 힘' / '자본투자'가
노동소득 높이는 번영의 열쇠 /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?
/능력주의가 자본주의의 본질인가!

■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?

“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 원리를 적용하면 강가의
조약돌을 줍는 일도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. 다른 일을
할 수도 있을 시간을 조약돌을 줍는 데 대가로
소모했다는 것입니다.”

III. 책 미리보기

제4장. 특혜·특권 없는 자유사회가 공정사회

자유사회가 참된 공정사회다 / 내로남불의 정치적 의미는
진영논리 / 시장은 이기심을 길들이는 훈련장 / 추락한 가족의
가치를 회복해야

이기심을 억제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:

행동 조정./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인하는 기업들의 경쟁.
품질이 나쁨에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
시장은 내버려 두지 않음./예의범절, 재산 존중, 상(商)관행 등
자생적으로 생성되는 정의의 규칙.

III. 책 미리보기

- → 시장은 사익추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정의, 절제와 신중의 미덕을 배우고 훈련해 이기심을 길들이는 거대한 학습장.

기업과 개인들은 타인들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검증해야함

III. 책 미리보기

제5장. 복지국가 문제는 재정 아닌 원칙의 문제

보편복지는 국가의 존재 이유도 아니다/ 국가의 존재 이유는 복지 아닌 자유의 보호/ 빈곤의 해법, 자유시장에 있다/ 과도한 복지가 '가족해체' 부른다 /복지에 위협받는 자유와 책임정신 /기본소득은 돈이 아닌 '원칙의 문제'다 /복지 확대는 재정 아닌 원칙의 문제다

■ 빈곤의 해법, 자유 시장에 있다/

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?

- (1) 보수주의: 개인의 책임, 사람이 가난한 건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.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능력을 발휘하고 성실한 노력.

III. 책 미리보기

- (2) **사회주의:**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시각.
동포애, 측은지심 등 유대감이라는 집단주의적 도덕률을 강조하면서 규제, 재분배, 보조금 등 복지정책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함.
- (3) **자유주의:** 빈곤의 원인을 법적·정책적 요인, 기업규제 노동시장규제, 정실주의 정책 등 정부규제와 경제활동을 위한 자유의 억압.

III. 책 미리보기

제6장. 사회주의는 석기시대 정신

사회주의 국가론: 온정주의 vs. 어버이주의/ 반자본주의 정서의 뿌리/ 석기시대에 갇힌 시대정신 / 자유주의의 적(敵)은 제로섬 마인드/ 최저임금제 배후는 우생학(優生學) /실패한 사회주의가 소멸 않는 이유

■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함에도 소멸되지 않는 이유:

- 1) 동기화된 추론: 확증편향
- 2) 본능적 가치가 사회주의

III. 책 미리보기

제6장. 사회주의는 석기시대 정신

3) '합리적 불합리' 논리:

예) 소주성 정책은 틀렸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좌파의 공적 지식인(여론의 지도층)의 논리.

- 실패했다고 하여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포기한 좌파지식인은 매우 큰 감성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. 역적 배반자라는 비난..

III. 책 미리보기

제7장.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자유화

경제적 자유 짓밟는 경제민주화 /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인가? /
경제민주화는 반(反) 법치주의 /

제8장. 법의 존재 이유: 자유의 제한 아닌 보호

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타락한 것/ '진짜 법치'와 '가짜 법치'/
경제적 자유 옥죄는 법의 위기/ 자유주의 법사상으로 무장하라/
준법의식은 법치 원칙의 확립으로부터/삼권분립에 실패한 이유

III. 책 미리보기

제9장. 민주정치가 어떻게 자유를 보호하나

민주주의의 참뜻: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/ 경제적 자유는 민주주의 토양/ 법을 타락시키는 민주주의 / 숙의정치 넘어 자유의 정책을/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야

제10장. 헌법이 중요한 이유: 자유와 헌법주의

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한 제임스 뷰캐넌/ 권력구조 아닌 권력제한이 중요한 이유/ 헌법이 범한 거대한 실수/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개헌이 어려운 이유

III. 책 미리보기

■ 삼권분립에 실패한 이유:

권력 분립과 법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. 법치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정치적 이상(理想).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삼권분립의 본 모습.

■ 권력구조 아닌 권력제한이 중요한 이유:

- 권력 구조는 누가 권.력을 행사하는가에 초점
- 중요한 건 국가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는가가 중요
-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

III. 책 미리보기

제11장. 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

국가부채는 경제 아닌 도덕의 문제/ 국채가 부도덕한 금융상품인 이유 /
보편적 복지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려면/ 보조금제도: 재정헌법이
필요한 이유/ 헌법경제학에 비추어 본 독일헌법의 부채제한 규정

■ 국가부채는 경제 아닌 도덕의 문제

미래세대 부담 늘리는 재정 살포는 '소비성 빚잔치'
불과할 뿐 '수혜자가 곧 부담자'가 될수 없음. '빚폭탄'
떠넘기기 빚 갚기 위해 새 빚 얻는 '폰지 게임' 같은
돌려막기가 국채의 본질

감사합니다

